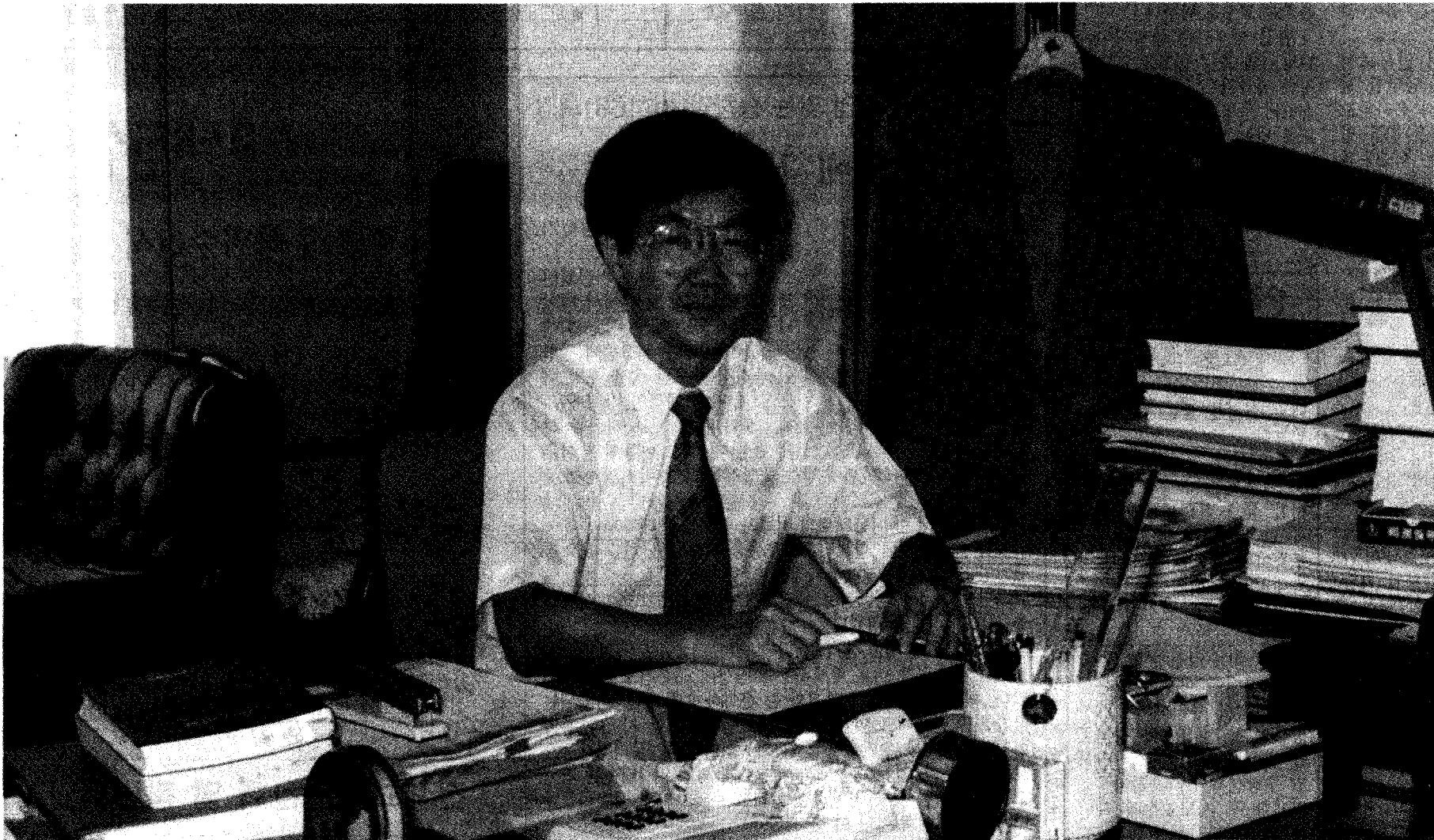


경희의 이름



진실의 날 위를 걷는 열정 '판사'

후회없는 선택, 전문가의 길을 가라



▲집무를 보고 있는 유철균 동문

지난 3월 시작했던 동문 찾기 캠페인이 6개월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렸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필뿔뿔한 벚꽃처럼 동문 한명 한명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뽀얀눈에 녹음이 질어질 즈음이 되니 7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동문들이 생겨났다.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경희의 이름으로'에서 만나보았다. (편집자)

탕!탕!탕! 이 세 번의 울림으로 자신의 결정을 당차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판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특권의 주인공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한자리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경희 동문이 있다. 법학과 71학번인 유철균 부장판사가 바로 그 사람.

연수원 2년차 시절 결혼한 아내와 세 딸을 둔 그가 법조계에 발을 내디딘 계기는 아주 간단하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이라고 믿었으므로 도전해 볼만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 심심한 계기에 비해 그가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해 갖고있는 열정은 말 그대로 열정적이다. 매우 이를 정도는 아

군을 해야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 낼 수가 있지만 그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한 번도 후회로 이끈 적이 없다.

믿음으로
세번의 울림으로
자신의 결정을 당차게 말하는 사람

“누구나 한가지를 선택하면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미련을 갖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막상 후회 끝에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다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이처럼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간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법학을 해보겠다고 다졌던 마음을 대학 1차 시험이 준 좌절에 의해서도 굽히지 않고 다시금 법학도의 길을 선택한 것만 보아도 그가 그의 선택에 갖는 확신은 남다르다. 입학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고통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어 쉽게 이겨냈다.

하남쪽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고시촌이 존재하지 않았던 70년대 시절에 그의 공

부방이 되었던 곳은 오로지 학교 도서관 그리고 하숙방이 전부였다. 고시학원도 성행하지 않았으니 공부법도 물론 독학이었다. 그나마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적으로 지도했던 당시 교수들의 강의가 전부. 그렇기에 그는 지금을 사는, 고시학원과 고시촌이 준비해 차라리 선택의 고통을 겪는 후배 법학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흔히 법조인이 고급스럽고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법조인이죠. 더군다나 사회의 발전속도가 빠른 요즘에 발맞출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진취적인 자세로 공부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 길이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법조인이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가 그 중 판사를 택한 것은 조용하고 꼼꼼한 자신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이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고민 마저 없을 리는 만무하다.

그가 이 길을 걸으면서 가장 힘들어 했던 때는 바로 그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직할 당시였다. 처음이자 현재로써는 마

지막으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면서 그가 느낀 괴로움이란 그 어떤 고통에도 밀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해왔던 많은 재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도 바로 그 때 그 재판이라고 한다.

선택에 갖는 확신
사형선고를 내릴 때 느낀 괴로움
인간적인 고민...

그 밖에도 그가 판사로써 어려움에 처할 때는 진실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가 없을 때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갖가지 재판기록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판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으로 결하여 경청하는 자세를 꼽는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서구에 의존하는 문화가 아닌 관계로 증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법과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생겨난 부조화라 할 것이다.

“당연히 이거야 할 사람에게 증거부족

이라는 이유로 가당치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제도상의 한계를 느껴요. 삭막하나마 문서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힘든 점보다는 보람이 더 많기에 기록을 집으로 싸가 숙제를 할 지언정 말없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이다.

이거야 할 사람이 이긴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자신에게 보내온 감사편지 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한가지. 판사라는 직업이 워낙 공정해야 하다보니 연고가 있는 사람의 청탁이 부담스럽고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다보니 그야말로 외로워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 전해지는 감사편지는 도리어 감사를 하고 싶기까지 하다.

대학 학창시절 동안도 자신이 선택한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 폭넓은 인간관계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아쉽기는 취미활동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틈 나는 대로 헬스장에도 가고 시간적 여유가 뒷받침된다면 등산을 강행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그에게 있어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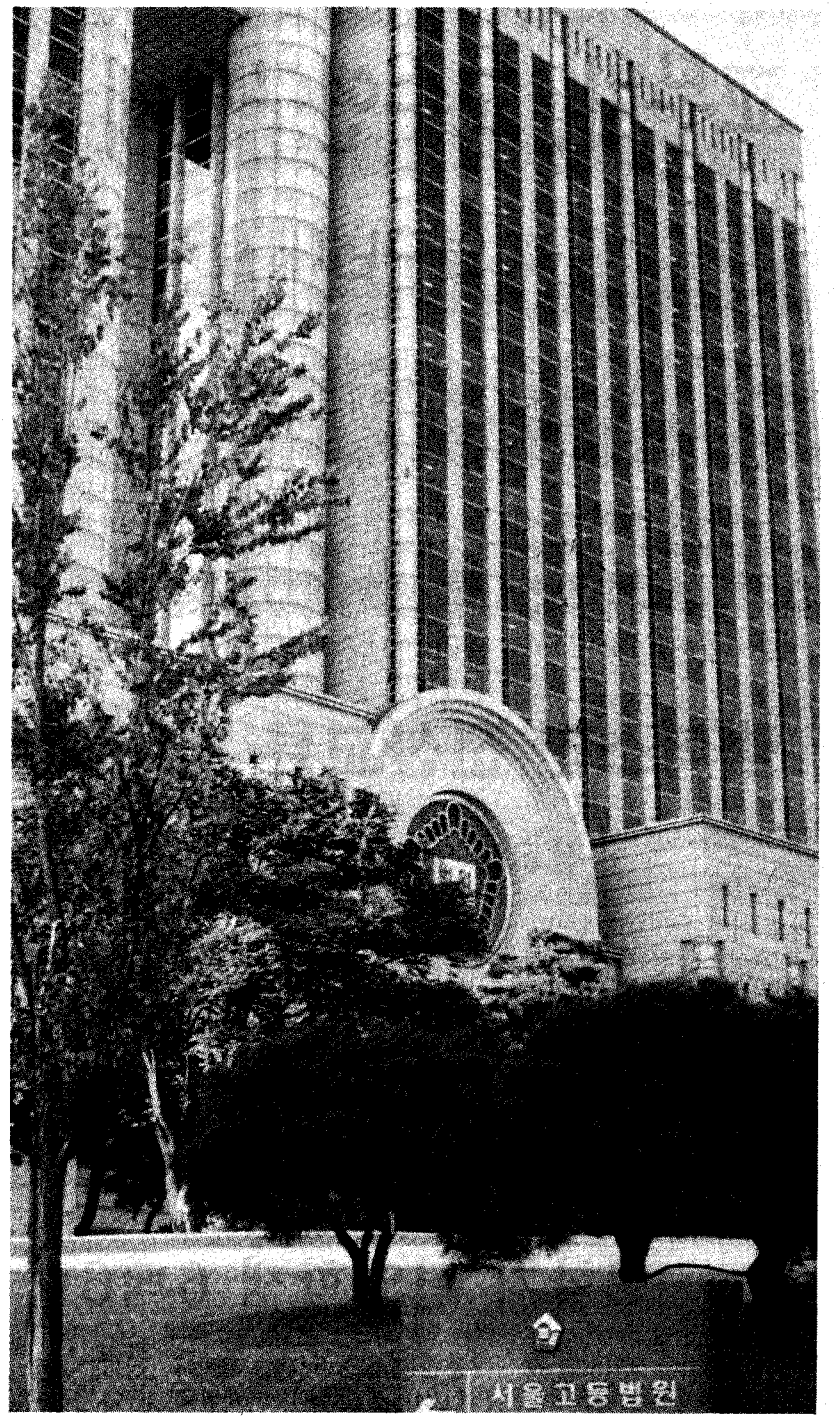
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보니 매년 법대에서 개최되는 모의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후배들을 도우면서 젊음을 찾는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수두룩한 기록에 또는 계속되는 재판에 눈 코 뜰 새 없는 그이지만 19층 그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또는 전망 좋은 창밖을 주시하다가 언뜻언뜻 생각하게 되는 대학 시절은 어찌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그래도 보람이 있기에
현실과 이상의 일치를 위해
말없이 그 길을 계속 걸을 터

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앞에 있는 거라곤 누추한 술집이 전부였던 70년대에 그가 거닐었던 교정을 지금 현재 누비고 있는 후배들에 대한 바람도 당부에 가깝다.

“학교가 강해지려면 동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 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서만은 일류가 되어야 해요. 한 자리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때 그 영광은 다시 그가 속해 있던 집단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유동문이 근무하는 서울지방법원 전경

색깔있는 대우광고 만들기 (마지막판)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대우가족

드디어, 산을 넘었다!

“배경은 초등학교의 한 교실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 진행중인 회의실은 스토리보드"를 설명하는 김백호팀장의 목소리로 찜찜 찜찜 울린다.

“캠페인의 주인공인 초등학생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광고주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방금 설명한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캠페인은 93년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PR광고와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의미에서 발전이 있는 거죠?”

예상은 했지만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다.

“예! 93년에 대우는 세계경영을 선언하면서 기업세계화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창업 이래 끊임없는 해외시장개척과 그 성과를 기업이미지 광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6년에는 ‘문나라를 만드는 세계경영’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선두기업,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공간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설명드린 캠페인은 이런 토대위에 세계경영의 목적을 시간적 의미로 확장,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소비자들은 대우의 세계경영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은 물론이구요. 이때, 그 목적을 ‘우리후손을 위해서’라는 대우의 경영철학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경영, 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 대우의 기업이념과 맞아 떨어진다고 보지만, 교실발표 장면이 너무 과장되지 않게 표현해 주세요. 이제 진술하고 잔잔한 감동이 필요하니까요.”

“15초동안 이런 메시지를 표현한다면 시간이 부족할텐데, 캠페인방향이 그렇다면 ‘대우가족로’를 별도의 cut으로 하지 말고 환호하는 아이들장면의 화면하단에 처리합시다.”

“그리고 발표장면에 역점을 두어 제작하고 대우의

메시지는 남성성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문과 잡지광고는 TV광고와 연결감을 한층 부각시켜 주세요!”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한 뒤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와 의견이 이어진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은 실무진과 의논하여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캠페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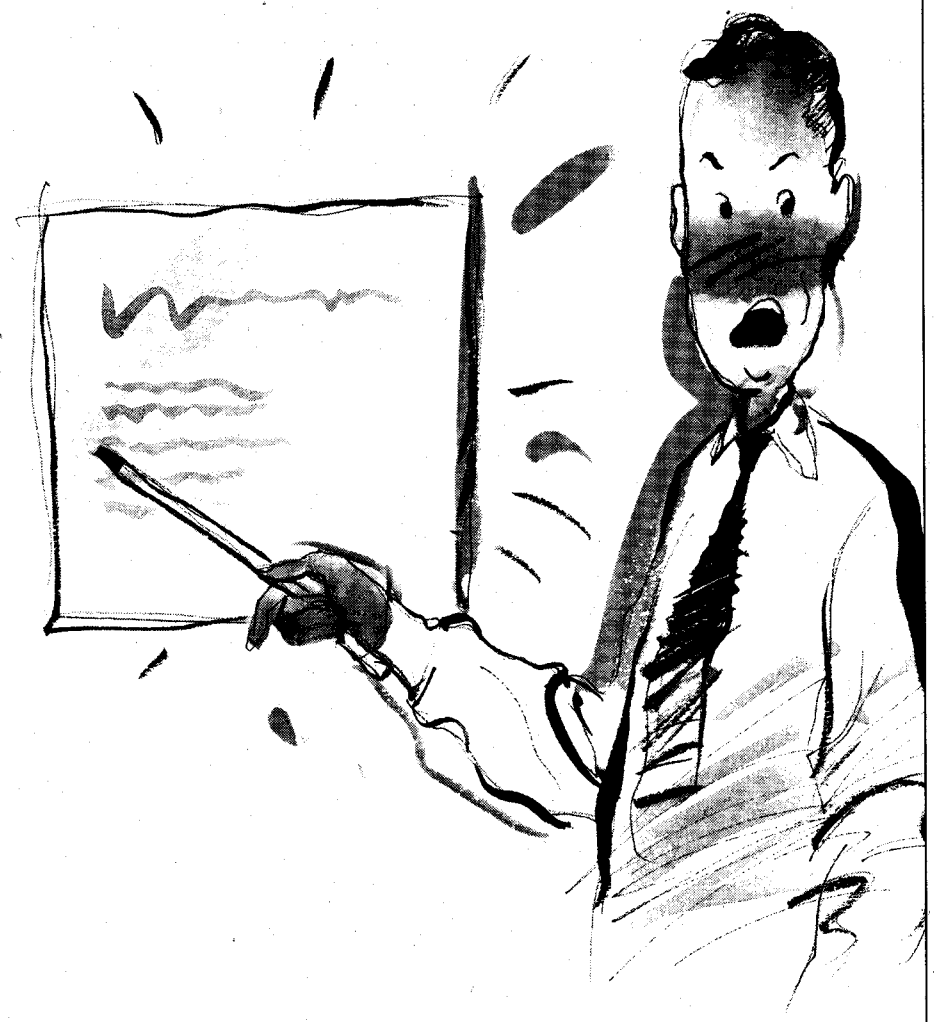
“드디어 산을 넘었구나!”

김팀장은 허탈함마저 느낀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차창밖으로 유치원생인듯한 어린이들이 남산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캠페인을 준비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던 딸 헤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근처에 인형가게가 어디 있지?”

오늘은 헤림이가 갖고 싶어했던 인형을 사서 일찍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끝>



그동안 '색깔있는 대우광고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아이디어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